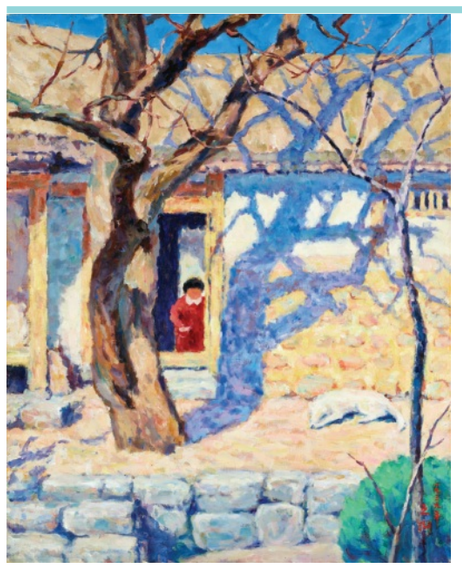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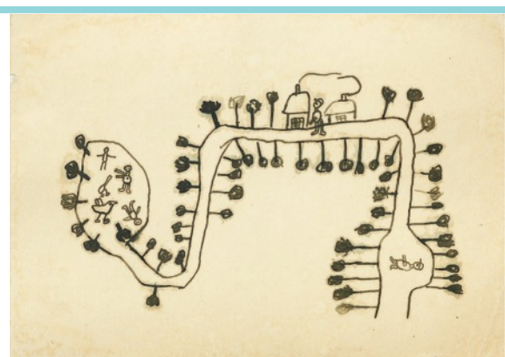
화제의 문화현장-정읍시립미술관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전


오지호 작 '남향집'(1950년대)
사진제공=정읍시립미술관


진환 작 '길과 아이들'(1930~1940년대)

황영성 작 '소시장 이야기'(1981년)

김환기 작 '초가집'(1950년대)

황재형 작 '황지 330'(1981년)

남도 미술 따라 근현대 미술사 흐름 '한눈에'

정읍시-국립현대미술관 공동 기획 내달 12일까지

오지호·김환기·진환·이우환·황영성 등 1930~2010년대 명작에 '눈 호강'

1부-근대미술을 꽃피우다

오지호 '남향집'-광복 전 개성 자택 '민족 화가' 故 진환 희귀 컬렉션

2부-추상미술을 실험하다

1950년대 작 김환기 '초가집'

3부-매체예술로 확장되다

탈평면·오브제·설치·퍼포먼스 감상 황재형…백남준·박현기 비디오작도

지난 9월 7일 전북 정읍시립미술관을 찾은 팔순의 황영성 화백은 눈시울이 붉어지는 감회에 젖었다. 40년 전 자신의 품을 떠난 '소시장 이야기'(캔버스에 유채, 194X259㎝, 1981년 작)를 이곳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이다. 노 화백은 마치 오래전 헤어진 가족과 상봉한 것 처럼 반가운 마음에 그저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다.

사실, 그에게 '소시장 이야기'는 각별한 작품이다. 1980년 5월 항쟁 이후 실의에 빠진 '광주'를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수십여 마리의 소와 다양한 군상의 시민들을 캔버스에 담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시장 이야기'는 중견 작가로의 비상을 꿈꿨던 그의 분신과도 같은 작품이다. 당시 서울 신세계백화점 갤러리에서 기획한 '전국 청년작가 초대전'에 지역에선 유일하게 초대받은 40살의 청년작가는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소를 모티브로 대형 작품을 출품한 것이다. 실제로 정읍시립미술관의 한 벽면을 가득 메운 작품은 그 자체만으로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낸다. 황 화백은 "작품을 둘러본 미술평론가들과 컬렉터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며 "청년 시절의 나를 마주한 것 같아 새로웠다"고 회고했다.

황 화백을 40년 전으로 되돌아가게 한 건 바로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전(9월7~12월12일, 정읍시립미술관)이다. 정읍시와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 가운데 광주, 전남북과 '특별한 인연'을 지닌 작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립현대미술관의 대표작 뿐만 아니라 전라도 출신의 화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도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전시는 193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근현대미술사의 주요 흐름을 보여주는 '명작'들을 1부 '근대미술을 꽃피우다', 2부 '추상미술을 실험하다', 3부 '매체예술로 확장되다'로 꾸몄다.

미술관 1층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오지호 화백의 '남향집'(80x65cm)과 '처의 상'(72x 52.7cm, 1936년 작)이 방문객을 맞는다. 블루톤의 벽면에 나란히 내걸린 두 작품을 보면 마치 오지호(1905~1982) 화백과 부인 고 지양진 여사를 만난 것 처럼 반갑다. 1939년에 그린 '남향집'은 '남향집'은 생전 오 화백이 아꼈던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무엇보다 '남향집'은 한국 미술사에서도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 작품이기도 하다. 8·15 광복전 개성의 자택을 배경으로 그린 작품으로, 한국적 인상주주의를 개척한 '문제작'이라는 점에서 현재 등록문화재 제536로 지정돼 있다. 화면 중앙의 나무와 그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 돌 죽대 등이 푸른색과 보라색으로 대비돼 인상주의적 경향을 보여준다.

부인 지양진 여사를 모델로 한 '처의 상'은 오 화백이 개성의 소동고등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할 무렵 그린 작품이다. 흰색 저고리와 옥색 치마, 단아하게 빚은 머리 스타일은 1930년대 전형적인 한국여성의 고전미를 담고 있다. 흰 저고리의 옷 주름에 흐르는 엷은 청색과 옥색 치마 곳곳에 드리워진 붓 자국과 흰색 액센트에서 인상주의의 색채가 묻어난다.

발걸음을 옮기면 토속적인 정취가 물씬 풍기는 수화 김환기(1913~1974) 화백의 '초가집'(1950년대, 35x42㎝)이 나온다. 고향인 신안 안좌도의 고택을 떠올리게 하는 작품은 1950년대 지붕의 마티에르와 분홍색으로 마감한 바닥 색면이 토속적인 정서를 상징한다. 한국 추상미술을 전개한 김 화백이 본격적인 추상 작업에 앞서 초기 추상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작품이다.

1부 '근대미술을 꽃피우다'(제1전시실)에서 남다른 존재감을 보여주는 작품은 고 진환(본명 진기용·1913~1951)화백의 컬렉션이다. 전북 고창 출신으로 이쾌대·이중섭과 동인으로 활동하고, 홍익대 미대 창립 교수를 지냈지만 6·25 전쟁 중 38세의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황망히 세상을 떠난 비운의 화가다.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현재 남아 있는 작품들은 손에 꼽을 정도로 희귀하다. 광주에서 거주하는 그의 둘째아들인 진경우 화백 조차 이번에 출품된 작품들을 본 적이 없다고 하니 매우 특별한 고향 나들이인 셈이다

그는 이쾌대가 남긴 수십 여 편의 편지와 사진에 '단골'로 등장할 만큼 이 화백의 삶과 예술에 큰 영향을 끼친 화우(畵友)이자 멘토였다. 그도 그럴 것이 1930년대 초반 일본에서 만난 두 사람은 김종찬, 이중섭 등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미술가 협회'를 결성, 서양화에 전통 회화의 기법과 색채를 도입한 민족화가였다.

미술관에서 만난 대표작 '천도와 아이들'(31x93.5cm, 1940년대 추정)과 '길과 아이들'(12.8x18cm, 1930~1940년대), '연기와 소'(17.5x25cm,1940년대), '소'(44.2x52.2cm,1942년)의 소재와 화풍이 이중섭(1916~1956) 화백과 유사해 당시 각별한 관계였음을 추론케 한다. 이밖에 도상봉, 김기창, 이중섭, 변월룡, 박수근, 장욱진, 박고석을 비롯해 근현대사 대가 이용우·이상범·김은호·노수현·변관식·허백련 6인의 병풍 그림도 만날 수 있다.

미술관 2층에 전시된 2부 '추상미술을 실험하다'(제2전시실)는 1950년대 현대미술 맥락 속에서 시작된 추상미술의 경향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우환(85)화백의 '점으로 부터'(117x117, 1976년 작), 김창열 '물방울'(182x230㎝, 1978년 작), 유영국, 하인두, 이응노, 윤명로, 류경채, 김병기 등으로 이어지는 한국 추상미술의 흐름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새롭게 부각된 '현대성'에 대한 당시의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제3전시실은 '매체예술로 확장되다'란 주제로 197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탈평면, 오브제, 설치, 퍼포먼스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화순 출신 '광부화가' 황재형(69)의 '황지330(1981년 작)', 1980년대 리얼리즘 회화와 1990년대 이후 백남준, 박현기 등의 비디오 작품이 돋보인다.

그중에서도 황 작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황지 330'은 광부의 작업복 상의를 화면 가득히 그린 작품이다. 실제로 1979년부터 탄광촌 기행을 시작한 자신의 경험을 녹여 강원도의 피폐한 현실을 표현했다. 목 늘어난 쌍방울 러닝셔츠 위로 헤진 작업복과 상의 왼쪽 주머니에 신분을 드러내는 표찰 등 2m의 압도적인 크기와 치밀한 묘사가 노동자의 비극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곽인식, 김구림, 임옥상, 안규철, 유현미 등의 작품도 전시돼 있다.

이흥재 정읍시립미술관장은 "지난해 피카소전시등을 통해 퀄리티가 있다면 얼마든지 다른 도시에서도 관람객들이 지방의 소도시로 기꺼이 관람을 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로 문화 나들이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마음의 힐링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 가능하며(오후 5시 입장 마감) 월요일은 휴관한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관람은 현장 접수 및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유료(정읍시민 2,000원(신분증 제시)/관외 5,000원)이며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정읍=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미술의 아름다운 순간들' 전은 고 오지호, 김환기 화백을 비롯해 황영성, 황재형 등 전라도 출신의 작가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점에서 남도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엿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